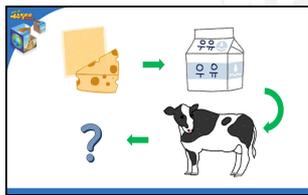


<예수빌리지 구역1>
유아·유치부 1과

제 목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 - 2장 3절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절
외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포인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 표시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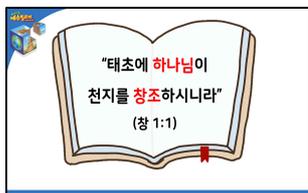
(▶치즈)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남남 맛있는 치즈예요! 여러분도 치즈를 좋아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전도사님도 치즈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치즈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 우유) 아하! 치즈는 우유로 만드는 것이예요. 우유를 냄비에 넣고 끓

이면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 젖소) 바로 젖소에서 젖을 짜서 우유를 얻게 되어요.

이렇게 치즈는 우유로 만들고, 우유는 젖소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젖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또 (두 발을 구르며) 내가 밟고 있는 땅, (토끼 흉내를 내며) 내가 좋아하는 토끼, (두 손을 얼굴에 대고 꽃받침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들어 보여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태초에 / 하나님이 / 천지를 / 창조하시니라.” (함께 읽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유를 주는 젖소,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ś!”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캄캄하고, (두 손으로 앞을 더듬거리며) 아무 모양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어! 그런데 맨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빛아! 있으라!”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떼어내며 ▶ **빛**)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빛을 보시며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두 손을 머리 위에서 펼치며) 높은 하늘과 (두 손으로 물결을 표현하며 ▶ **바다와 땅**) 깊은 바다와 (두 발을 구르며) 단단한 땅을 만드셨어요. (▶ **꽃**) 그리고 땅에는 웅장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도 살게 하셨어요. 아무 모양이 없던 세상에 하늘과 바다와 땅이 생겨났어요. 하늘과 바다와 땅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맞아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늘과 바다와 땅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나라!”
(▶ **해와 별**)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해는 낮을 지키고 달과 별들은 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날개 짓을 하며 ▶ **새**) 크고 작은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새들을 만드셨을까요? (독수리, 참새, 비둘기, 기러기, 까마귀, 까치 등) 하나님은 크고 작은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우리가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볼까요? (두 팔을 벌려 하늘을 나는 동작을 함께 해본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많은 새들을 만드셔서 하늘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바다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아! 생겨나라!”
(▶ **물고기**) 우와!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고기를





만드셨을까요?(상어, 고래, 조개, 불가사리 등)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게 하셨어요. 우리도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헤엄쳐볼까요? (두 손을 겹쳐 헤엄치는 동작을 해본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만들어 바다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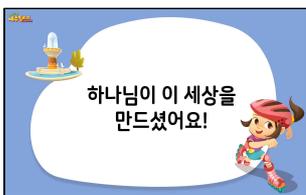
비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땅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동물들이 가득하여라!”

(▶ **동물들**)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동물들을 만드셨을까요? (곰, 호랑이, 기린, 토끼, 다람쥐, 달팽이, 개미, 메뚜기 등) 하나님은 집에 사는 동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원숭이를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함께 그 동물을 흉내내볼까요?(다양한 동물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잠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또 있어요. (▶ **사람**) 바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먼 곳을 바라보는 동작을 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우와! 정말 보기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말해볼까요? “우와! / 정말 / 보기 좋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늘을 볼 때에는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다!” 하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꽃에 물을 줄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꽃이구나!” 하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집에서 강아지와 놀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강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친구들과 놀 때에도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친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다워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해요.

